

광주시 추석 연휴 시내버스 증차·지하철 연장

귀성·성묘객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확대 운영 축산물 위생 검사 횟수 늘리고 감시 강화도

광주시는 추석(9월13일) 연휴를 맞아 다음달 12일부터 15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과 성묘객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증차·지하철 연장 운영을 추진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추석 명절 축산물 위생 검사 횟수를 늘리고 감시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우선 연휴 4일 동안 귀성·성묘객이 몰리는 상무지구-광주종합버스터미널-국립 5·18민주묘지 방면 '518번' 시내버스를 하루 60회에서 88회로 28회 증차

해 운영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월남동을 운영하는 '지원15번'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해 영락공원을 경유하도록 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을 확대 운영해 성묘객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성묘객이 몰리는 국·시립묘지와 주변도로에서는 시·구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 등 80여명이 교통정리 및 주차지도 활동을 전개한다.

종합고속버스터미널, 광주승정역, 말바우 시장 등 교통혼잡 지역에도 공무원·경찰·모범운전자 등 350여명이 교통정리 및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펼친다.

지하철은 연휴 전날인 11일 영업종료 후 소태방향과 평동방향에서 각 1회씩(총 2회) 밤 12시45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광주시는 고속도로와 시내 일원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상황을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정보센터에서 분석한 CCTV 자료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하고 고체가 예상되는 주요 IC(광산·산원·동림·서광주·용봉·동광주·문흥) 진출입로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 배치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일부터 12일까지를 '축산물 위생검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검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도축장 위생관리를 집중 강화하고, 출하 가축에 대한 철저한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식육 중간유통물질검사와 미생물검사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는다.

추석 전날인 12일에도 포유류 도축장 2곳을 개장하고, 축산물 공급을 늘려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日 수출입 기업 650곳 전수조사

현장 방문 피해 상황 파악 지원사항 등 맞춤형 방안 마련

전남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전남지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조사 방식으로 업체별 대응 방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사항 등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게 전남도 복안이다.

전남도는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일본을 상대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지역 650개 기업(2018년 기준)을 대상으로 현장을 돌며 정확한 수·출입 현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을 선별, 11월 8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업 대 처방안·피해상황·지원(건의) 사항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되는데 따라 양 국간 수출입 제품 심사 강화로 제때 구매·납품

할 수 없는 여건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대상 기업이 파악되면 중앙부처·유관기관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 지역 내 산업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화학·금속 분야로, 여수·순천·광양지역에 관련 업체가 몰려있다. 전남 지역의 수입액은 지난해 말 기준 360억 달러로, 일본에서 수입한 규모는 2.5%(9억) 수준이다. 일본산 수입품으로는 화학공업 제품이 52.3%로 가장 많다.

전남도는 또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지방세 1년 징수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금속·화학 등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관련 연구개발 과제와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발굴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상황별 지원방안을 마련,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민 10명 중 8명

농민수당 도입 찬성

광주전남연구원 설문 조사

광주·전남지역 농민의 차별없는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남도민 78%는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오후 시의회 예결위 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지역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수준은 49.7% 수준인 반면 청년농민 비율은 1.4%에 불과해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과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등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승현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광주 인접지역인 전남과 전북이 2020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예산 반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농민수당은 추가적인 소득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광주형 일자리 나눠먹기 인사 안돼...박광태 대표 사퇴하라”

시민단체, 이용섭시장 사과 촉구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주)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박 전 시장은) 자동차 산업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2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상품권 강'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 사적으로 사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범죄자"라며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이어 "형기를 마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그가 공기업이자 시민기업의 성격을 가진 (주)광주글로벌모

터스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한가"라며 "(박 전 시장을 추천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대표이사를 재추천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전 시장이 누구인가? 그는 노사상생 4대 원칙을 구현할 광주형 일자리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노동, 반노조의 일방독주형 인사"라며 "광주에 그렇게도 인물이 없나라는 자괴감이 들게 하는 선임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회와 한국노총 광주본부에 대해서도 "박 전 시장 선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다른 시민단체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도 이날 성명을 내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박 대표이사 선임을 철

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은 형기가 끝난 지 1년여 됐다"며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마무리되더라도 2년 이내에 대표를 맡을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며 법적·도덕적 흠결을 문제삼았다. 박 전 시장을 선임한 이 시장을 향해선 "광주에 상생과 협력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그렇게 없는지 묻고 싶다. 이 시장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것 밖에 되지 않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처음부터 특정 정치세력간 나눠먹기 식으로 인사가 배치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분기 전남 어업생산량 65만7412t

전년동기비 4.1% 증가

올해 2분기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 늘었지만, 가격 하락으로 어업생산액은 0.9% 줄었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남도 어업생산 동향 조사 결과, 어업생산량은 65만7412t으로 전년 동기(63만1452t)보다 4.1% 증가했다.

어업별 생산량은 일반해면어업(연안·근해어업) 3만1177t, 천해양식어업(얕은 바다에서 양식하는 어업) 62만4121t, 내수면어업(육지에 있는 수면에서 하

는 어업) 2114t이다.

주요 품종 생산량은 멸치 3041t, 다시마류 47만851t, 뽕자어 1660t, 쫄새우류 2827t, 납치류 3979t, 붕어 521t이다. 납치류는 지난해보다 53.7%, 쫄새우류는 26.5%, 다시마류는 16.3% 급증했다. 반면 붕어는 35% 감소했다.

2분기 어업생산금액은 62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18억원)보다 0.9%(~57억원) 감소했다. 어업별로는 일반해면 어업 2329억원, 천해양식 3390억원, 내수면 542억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혁신박람회 목포서 다음달 6일~8일 열린다

스텝프 랠리 등 부대행사도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가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대에서 '기억의 터전'에, 혁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혁신박람회는 지역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사업 성과를 발굴·확산시키는 취지로 전남도가 마련한 행사다.

박람회 장소인 근대역사문화거리에는 도시재생의 모델로 주목받는 곳으로, 전남도는 목포 원도심의 빈 주택·상가와 역사·문화자원을 리모델링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거리를 행사 전시공간으로 활용했다.

목포 옛 건물들을 활용한 전시관에서는 정부와 전남도, 시·군의 혁신 우수 사례를 살펴볼 수 있고 전남도 출연기관의 기술·창업혁신 분야 부스와 사회적기업·마을기업·지활기업의 특산품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관람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텝프 랠리, 퀴즈 한마당, 청년밴드 경연, 문화예술공연, 가상현실(VR)체험, 근대 의상 대여관 등 부대행사와 즐길 거리도 준비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